

Jeonju 20 Intl. Film Festival
2019.05.02_05.11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집행위원장 이충지)가 지난 3일 오후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막작을 비롯한 전체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6편 증가한 262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본보 4월 4일자 1면〉

이날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김승수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프로그래머들의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올해의 상영작을 관객에게도 실시간으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획기적인 형식을 취했다.

표현의 자유 위에 표현 방식 '다채'

■ 김승수 전주시장 "진정한 영화의 도시 조성 포부" · 이상용 프로그래머 "전통적 형식 탈피"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전주국제영화제를 되돌아보며 "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전주국제영화제의 '독립' 정신"을 강조했다. 더불어 3년 뒤 완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통해 "365일 24시간, 관객 누구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감독 누구든 걸고 싶은 영화를 걸 수 있는 진정한 영화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20주년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영화 형식과 상영 방식을 탈피한 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올해의 방향을 예고했다. 이어 "20주년을 기점으로 재단장한 슬로건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지난 몇 년간 표방했던 '영화 표현의 해방구'에 선표를 덧붙여 그 의미를 달리했다"고 밝혔다. 영화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 표현의 자유 위에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조연설 중인 김승수 조직위원장

■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 · 폐막작 '스킨' ... 실험적 작품들로 구성된 프론트라인작 공개



이어 공개된 20회 개막작은 클라우디오 조반네시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로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다.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10대 소년들이 어른들의 마약 밀매 사업을 도우며 세력을 늘려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감독 클라우디오 조반네시는 성장의 이면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누아르 스타일로 그려내면서 나폴리의 곳곳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폐막작은 기 나티브 감독의 <스킨>이 선정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폭력적인 삶에 찌들어 있던 인간이 갱생하는 구원의 이야기다. <빌리엘리트>와 봉준호 감독의 <살결>에도 등장한 배우 제이미 벨이 에너지 넘치는 연기로 감정의 흐름을 이끌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의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생기로 화면을 가득 메운다.

11편의 국제경쟁작, 10편의 한국경쟁작, 역대 가장 많은 26편의 한국단편경쟁작을 비롯해 전주의 가장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는 프론트라인 상영작들도 공개됐다.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라 플로르〉 같이 13시간 동안 봐야 하는 마라톤영화 등 극한지점에 도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거 포진되었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 팔복예술공장에서
작년보다 16편 늘어난 262편 선배
슬로건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작년 슬로건에 선표 붙여 의미 달리해

■ 영화제 20주년 기념 '뉴트로 전주' 통해 전주의 친구 설명 · '익스팬디드 플러스' 주력



개막작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 스틸 컷(위), 폐막작 '스킨' 소개하는 이상용 프로그래머(아래).

장병원 프로그래머는 20주년 기념전과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20주년을 기념해 전주의 친구들을 조명하는 '뉴트로 전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20년 역사에 기록된 21명의 감독과 그들을 28개 작품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감독들이 영화제 기간에 방문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백 년 동안의 한국영화'에서는 '한국영화의 또 다른 원천'과 '와일드 앳 하트'라는 섹션을 통해 각각 20세기와 21세기 한국영화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진다. 지난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조명 한 이야기방 기획에 이어, 독립 스튜디오 영화에서 출발해서 SF 영화의 신화가 된 <스타 워즈>를 다양하게 이야기방하는 기획이 마련되었다. 8편의 시리즈 상영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스타 워즈 데이'로 기념되는 5월 4일에는 미니 오케스트라의 뮤직 퍼포먼스가 열리며 레고 모형과 디오라마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장병원 프로그래머는 "전주라운지에 영화제 기간 스타 워즈 관객 센터가 조성되어 볼거리와 함께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의 주력 프로그램인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소개했다. 장병원 프로그래머는 "실험적인 경향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 온 익스팬디드 시네마를 영화관 바깥 미술관으로 무대를 넓혀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극장 상영과 동시에 미술관에서 설치 형식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상영작 100편을 그래픽 디자이너 100명이 디자인한 '100필름 100포스터' 전시도 팔복예술공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만큼, 관객 편의를 위해 영화제 기간 영화의 거리에서 팔복예술공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 전주시네마 프로젝트 2019 선정작 소개 · '국도극장' 등 작품 제작진들과 함께



전주 시네마프로젝트 2019 선정작 인터뷰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의 11회 전주프로젝트마켓 소개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장편영화 투자제작 프로젝트 사업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9' 선정작 소개에 이어, 각 작품의 제작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사도라의 아이들> 다미양 매니를 감독을 제외한 <국도극장> 전지희 감독, 배우 이동휘, 이 상희, <아무도 없는 곳> 김종관 감독, 배우 연우진, <불술> 고희영 감독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생중계 되면서 약 6,800명이 시청하며 20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상영작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프로그램의 상영작 정보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onjufest.kr)를 통해 공개됐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9 선정작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와 팔복예술공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송효철 기자



20주년 기념전 '뉴트로 전주' 소개(위), 팔복예술공장으로 상영관을 확장한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는 장병원 프로그래머(아래).